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8년도 제3호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우리는 하느님께서 집을 지으실 때 쓰는 살아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은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춧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며
우리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3년 6월 26일 강론 중)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베렌프리트 신부님과 ACN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ACN의 일을 맡아 왔습니다. 이제 이 교황청 재단의 사명을 전 세계로 실천하는 데에 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청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ACN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사목적 소명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물자가 부족하거나 위협과 박해, 억압에 시달리고 침묵하도록 강요당하는 전 세계의 교회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ACN을 통한 형제자매 여러분의 후원은 위기를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표지가 되고 어둠속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ACN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작은 등대가 되어 믿음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첫 번째 교황 베드로는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1베드 2,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으로 처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애당초 잘 조직된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발판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이며 그 주춧돌은 예수님 자신이
 십니다.

이 주춧돌 위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필두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선물과 은사를 주심으로써 활동을 일으킵니다. 이 선물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봉사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중의 사도 바오로는 교회의 기반을 이루는 이 은사의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2,4-11)

모든 은사에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공동체적 봉사 직분을 맡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시적인 모습은 하느님 사랑에 기반한 이웃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교회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사도 2,44-45 참조). 이것은 곧 교

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 자녀로서 존엄성 있는 삶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을 전하는 ACN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는 필수품이 없어 고통받는 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카리타스’와 ‘아가페’는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확대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연히 마주치는(루카 10,31 참조) 가난한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보편적 사랑의 계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구성원도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할 구체적 의무도 지닙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가르침이 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갈라 6,1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ACN을 통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 언제나 필요하고 또 필요할 것입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멕시코 쿠에르나바카 교구에서 성체 선교 글라라 수녀회 소속 수녀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유치원과 학교, 병원, 응급차, 한센병 치료 시설에서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영성 운동을 지원하고 양로원의 독거 노인과 교도소 재소자들을 찾아가는 것도 수녀들의 소임입니다. 또한, 여러 마을을 방문하며 미사, 견진성사, 첫 영성체 등을 준비하고 학교 기숙사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곳, 전철역, 시장 등 다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수녀들은 가난한 이들과 버려진 사람들을 어머니처럼 자비의 팔로 감싸안아 줍니다.

마치 힘센 모터처럼 열심히 일하는 수녀들은 본원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으며 그 모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힘을 얻습니다. 멕시코 수녀들이 안식과 휴식을 찾곤 했던 수녀원은 2017년 9월 19일 오후 1시 쿠에르나바카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본원 건물이 지진으로 흔들려 벽에 금이 간 것입니다. 수녀들이 한때 보호를 받았던 곳은 이제 위험한 곳이 돼 버렸습니다. 서로 연결된 건물을 부분적으로 철거해야 하는데 수녀들의 침터도 그

대상입니다. 지진 이후 피정, 교리교육, 상담, 보육 등 여러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환자와 나이 든 수녀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내는 상황이지만, 수녀들은 더욱 힘을 내서 복구 작업과 모금 활동에 매진합니다. 이곳 쿠에르나바카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은 힘겨운 시기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체 선교 글라라 수녀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를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활동이 어려운 인도네시아나 시에라리온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표어가 쓰입니다. 이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사랑의 권고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수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녀들에게는 조용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활동과 복음화를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수녀원 복구 계획은 세워졌고 작업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ACN 역시 바빠졌습니다.

ACN은 쿠에르나바카 교구에 있는 수녀원 본원이 훌륭한 새 울타리를 지을 수 있도록 약 6500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지원사업

건설 지원

지원대상

성체 선교 글라라
선교 수녀회

지원금액

약 6500만 원



지진 이전 수녀원 경당



새 집을 짓는 공사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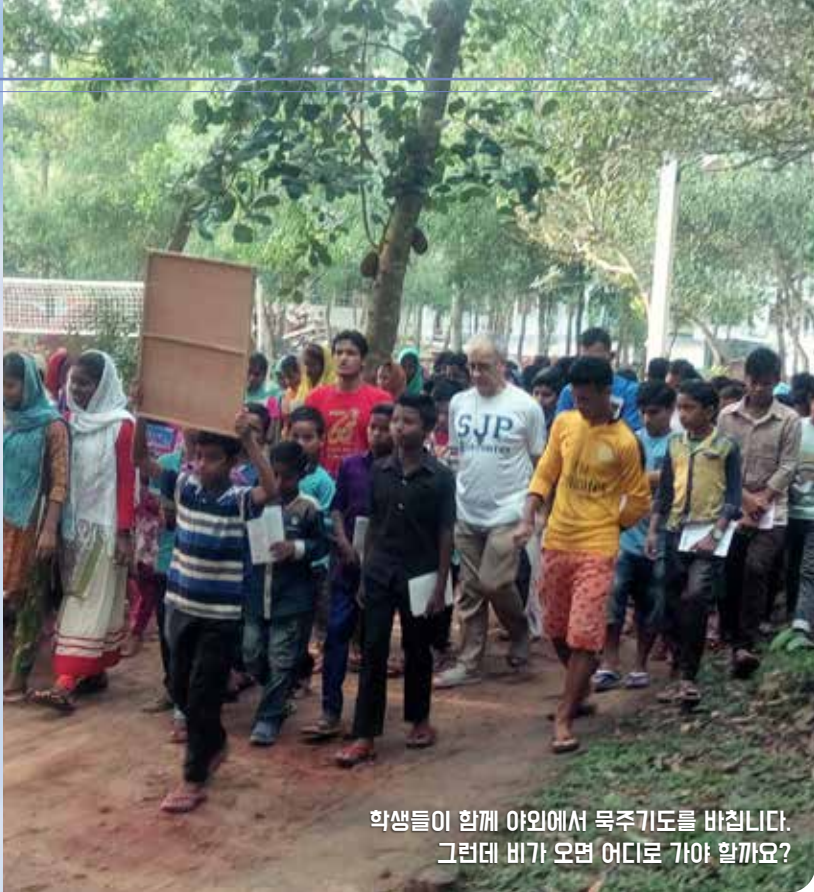


지진 이후 벽이 무너져 내린 건물



서로의 문화를 위하여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의 설립자인 성 마르첼리노 삼파냐 신부는 시대를 앞선 분이었습니다. 벌써 200년도 전에 성 삼파냐는 수도회 형제들에게 어린이에게 차별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야외에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속한 문화권에서 어린이가 어른과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다는 건 단지 글로서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특히 그 어린이가 ‘불가촉천민’이라면 불결하게 여겨져 더 낮은 대접을 받곤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소수 집단은 대부분 차 농장에서 일당을 받고 생활합니다. 그들이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 찻잎은 많게는 23kg인데, 이 최대치를 채워도 약 1천 원(83센트)밖에 벌지 못합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차 노동자’는 대개 그리스도인과 힌두교 신자처럼 소수 종교 신자들입니다. 방글라데시 인구 가운데 90%가 이슬람교도이고 9%는 힌두교를 믿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약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가 1년 반 전 북동부 실렛 교구에 설립한 성 마르첼리노 학교를 영적 고향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교생 98명 중 32명이 그리스도인이고 43명이 힌두교 신자이며 23명이 이슬람교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학생 수가 450명으로 증가하고 그중 1/3이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생의 3/4이 가난한 ‘차 노동자’의 자녀이며 고아도 적지 않지만, 모두 학교에서만 안식을 얻고 사랑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문화와 열린 마음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이 성 마르첼리노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현존을 느끼며 사랑을 나눌 성당이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며 하느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당이 있으면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아침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를 바치며 교리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성전은 학생들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차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주일 미사를 드리는 영적 구심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사랑의 원천이 될 새 성전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ACN은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의 깊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약 3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원사업



건설
지원

지원대상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지원금액



약 3300만 원



비오 신부와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교구의 본당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자 수도 너무 적고 성전 건립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본당 주보성인인 비오 신부의 전구를 청하며 새 성전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라살레트 선교사들이 2008년부터 이곳 신자들을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방을 하나 빌려서 임시 성전으로 사용했습니

다. 공간이 협소했던 까닭에 뺑뺑으로 쓰던 낡은 건물을 한 채 샀습니다. 폐건물을 개축하여 새 성전을 짓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하느님께서 쉼 틈을 주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본당은 분명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 비오 신부의 선종 50주기이지만, 신자들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성전에서 기념 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ACN은 이곳에 작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 약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동유럽)



케냐(아프리카)

지원사업

건설 지원

지원금액(우크라이나)

약 4000만 원

지원사업

건설 지원

필요금액(케냐)

약 1억 원

성모님과 함께 미신을 막습니다

케냐 키투이 교구 무세비 언덕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미사를 봉헌한 곳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교구는 이곳에 성모 순례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앤서니 무헤리아 주교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순례지가 은퇴 사제와 관상 수도회 수녀들과 함께하는 교구의 영적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속 신앙과 미신의 악영향을 막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미신을 몰리치려면 눈에 보이는 상징물과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보다 나은 후원자는 없습니다. 무세비 언덕의 자애로우신 성모님께서서는 본당 26개 및 사

제 80명, 신자 24만 명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모두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성모 순례지 공사에 필요한 재정 가운데 많은 부분은 신자들이 직접 모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마지막 이맛돌 한 개를 쌓아 올리기 위한 모금액이 1억 원가량 모자란 실정입니다. 무세비 언덕에 성모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케냐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해 주세요.**





사랑의 선교사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모든 소유와 물질에서 벗어나는 내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에서 드러납니다.”(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제28항)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이 말씀은 선교사들의 일용한 양식입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선교 수도회의 샤리타블 드리스 신부는 “선교사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작아져야 한다”라는 자신만의 원칙을 하나 덧붙입니다. 아이티 출신 드리스 신부는 멕시코에서 14년 간 활동했고 5년 전 과테말라 베라파스 교구 골고타 본당에 부임했습니다. 골고타 본당에는 17,000명의 신자가 있는데 대부분 원주민인 켈치마야인입니다. 드리스 신부는 이들을 사랑하고, 주민들도 드리스 신부를 사랑합니다. 그는 동료 선교사 2명과 함께 2000km²에 이르는 관할 구역을 돌아다니며 마을 132개를 방문해 미사와 각종 성사를 집전하고 교리, 수학, 읽기와 쓰기 등을 가르칩니다. 드리스 신부에게 이 모든 과정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낡은 트럭이 비포장도로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대개 진흙투성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드리스 신부는 “매번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이곳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인내하며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함께 울

고 웃으며 슬픔과 성공의 기쁨을 나눕니다.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어디에서 먹고 잘지 따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고, 신자들에게 불의한 일이 많이 생길 때에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학교도 전기도 깨끗한 물도 구급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얼굴을 볼 때 의미있는 일을 하는구나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켈치마야인은 3/4이 절대빈곤층에 속하며 1990년대 말까지 이어져 온 내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내전이 휩쓸고 간 자리를 이제 마약상인과 조직폭력배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선교 수도회는 63년 전부터 과테말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납치와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리스 신부는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마을이 잔치 분위기가 된다”며 사랑의 씨앗은 분명 자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통받는 켈치마야인에게 교회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드리스 신부는 주민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열악한 도로 사정이 그의 방문을 어렵게 만듭니다. 새 트럭을 사면 험한 길들을 더 빠르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ACN은 드리스 신부에게 약 17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드리스 신부와 동료 선교사가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과테말라

지원사업

 문송수단 지원

지원대상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선교 수도회

지원금액

 약 1760만 원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거리에서 주운 4만원

지금 보내드리는 4만 원(30유로)은 우리 아들이 길에서 주운 것입니다. 아들은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ACN에 기부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우리 아들에게 더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취업 문제 등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게다가 알코올중독 증세도 보이고 있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가 항상 도와 주는 곳에 기부하는 데 이 돈을 쓰라고요. 그러니 부디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아들에게 힘을 주셔서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느님의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돕고 싶습니다

ACN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 내는, 다른 이들은 할 수 없는 사랑 가득한 일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돕고자 합니다. 니네베 평원 재건 사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열정을 가득 담아서 앞으로로도 최대한 지원하고 싶습니다.

중동에 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라마단 기간을 알차게 지내시도록 여러분께 극장 회원권을 보내드렸습니다. 기도 안에서 함께합니다.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ACN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것을 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매달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

보내시는 곳

-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04537
- 2) 메일: info@churchinneed.or.kr
- 3)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 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검색 후 친구추가



ACN 한국지부, 천주교 전주교구 시기동성당 방문

ACN 한국지부는 5월 26일 그리고 27일 천주교 전주교구 시기동성당을 방문하여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ACN의 활동을 소개하는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신 김훈 주임신부님과 시기동 본당 교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림

ACN 한국지부 사무실 이전 안내

ACN 한국지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문의: ☎ 02-796-6440)



새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04537

ACN·가톨릭평화신문 공동기획 캠페인 ‘고통받는 교회를 도움시다’ 결산



특집 연재 [고통받는 교회를 도움시다]

지원 교회	모금액 (단위: 원)
파키스탄 (2017년 6월 11일자부터 4회)	28,461,953
레바논 (2017년 10월 29일자부터 6회)	33,596,922
우간다 (2018년 1월 1일자부터 6회)	74,032,790

소계: 136,091,665원

사랑나눔기획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지원 대상	모금액 (단위: 원)
파키스탄 추기안 공동체 (2017.06.18 보도)	18,939,600
파키스탄 물탄교구 (2017.07.09)	16,626,500
시리아 난민 바스아 카슈아 가정 (2017.11.05)	11,602,000
레바논 베이루트 성 안토니에 시약소 (2017.12.03)	22,990,000
우간다 가바바 성 마리아 신학교 (2018.02.25)	39,265,000
우간다 키타부본당 (2018.05.06)	50,067,000

소계: 159,490,100원

합계: 259,581,765원

ACN은 지난 한 해 동안 가톨릭평화신문과 함께 세계의 차별받고 박해받는 교회와 가난한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의 고통과 믿음 그리고 희망을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결과 파키스탄, 중동(레바논), 우간다 교회를 위해 모두 259,581,765원이라는 엄청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